협회 최초 모듈러 건강검진센터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지역본부는 SK에코플랜트와의 계약을 통해 협회 최초로 모듈러 건강검진센터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협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글 정지예 경기지역본부 사내기자

SK에코플랜트와 함께 쓰는 성장 스토리

경기지역본부는 공정 기간 단축과 더불어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여 건강검진센터를 구축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약 16,000명의 검진을 시행하며 안정적인 운영 궤도에 진입한 이번 사업은 협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 임시 공간을 활용한 출장검진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검진 시설을 갖춘 모듈러를 운영한다는 것은 협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의미 있는 도전이다.

지승유 건강진단국 국장은 "모듈러를 활용한 건강검진은 경기지역본부가 최초"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경기지역본부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만의 공간'이 만들어낸 자부심

모듈러 건강검진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안정감과 효율성이다. 박금주 건강진단국 팀장은 "기존 출장검진에선 매번 모든 것을 세팅해야 했지만, 모듈러는 몸만 움직여도 된다"며 "우리 공간이라는 생각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진 동선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내부 구조 덕분에 안내 표지판이 명확하게 배치되어 검진 과정도 수월해졌다. 하루 평균 100명을 수용하며 매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검진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장 속 실무자들의 이야기

SK에코플랜트 현장은 일반적인 검진 사업장과는 다른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현장 내 30~40개의 협력업체가 운영되며, 수검자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물질이 모두 달라 이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며 관리해야 한다.

담당인 전수연 건강진단국 차장은 "건강진단 하루 전날 오후 5시에 명단을 받다 보니 인원이 유동적이고, 건강진단 받을 물질들을 중복되지 않게 걸러내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일 새벽 5시 50분 협회를 출발하는 빠듯한 일정, 공사 현장 특성상 매번 바뀌는 길, 검진 결과의 실시간 공유, 며칠 내 완료해야 하는 사후관리 업무 등 높은 난이도의 조건들이다.

그러나 협회 실무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극복해 내며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초기 4~5개월간의 모듈러 구축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는 이제 안정적인 운영 체계로 자리 잡았다.

건강진단을 넘어 더 넓은 미래를 향해

SK에코플랜트 건설 현장의 장기 프로젝트 특성상 계약이 지속적으로 갱신된다면 협회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미래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SK에코플랜트 모듈러 건강검진센터는 단순한 검진 공간을 넘어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지역본부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협회 최초라는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이 성과는 우리 모두에게 자긍심을 선사한다. 이 모듈러 건강검진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며, 협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